

비엔날레 기간 다채로운 퍼포먼스 '볼거리'

작가·퍼포머들, 전시관·ACC 문화창조원 등서 진행

2018광주비엔날레 기간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광주비엔날레 주제전 중 하나인 데이비드 테의 '귀환(Returns)'전에서 아카이브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5·18광주민중항쟁을 다룬 퍼포먼스 등이 오프닝 기간인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선보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5전시실에서 선보이는 데이비드 테의 '귀환' 섹션은 광주비엔날레의 역사를 전시, 퍼포먼스, 워크숍 등의 형태를 통해 재고찰하는 동시에 미술의 역사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대화를 촉발시킨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아티스트 콜렉티브인 루 앙루파는 관객 참여형 워크숍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오프닝 기간과 10월 중 각각 1회 광주비엔날레 5전시실에서 선보인다.

뉴질랜드 작가 존 플레는 2개 작품 출품과 함께 9월 6일부터 8일까지 오프닝 기간 2회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코 응왕 하우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광주비엔날레 5전시실에서 2회의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2000년대 초반 광주비엔날레 및 아시아 각지에서 열린 초국가적 테마의 전시를 기록한 아카이브 자료를 전시하고, 이 자료와 얽힌 각종 서사를 소개한다.

우롱솔로의 'The Guest House'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2회 선보인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주요 출품작 및 전시가 열린 공간과 연계된 기억을 주제로 삼아 즉흥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것을 기록한 영상 작품 앞에서 작가들이 직접 라이브 퍼포먼스를 펼친다.

김만석&김성우&백종욱 큐레이터의 '생존의

기술: 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에 참여하는 로와정의 'trio' 퍼포먼스도 기대를 모은다. 연령이 다른 3인의 퍼포머들은 악기를 배워본 적이 없으며 광주비엔날레 기간 동안 약 20회 정도 각각의 악기를 연주하며 지정된 장소를 순환·이동할 예정이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로 구성된 트리오의 연주 퍼포먼스는 오프닝 기간인 9월 7일, 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1월 11일까지 매주 토·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약 20회 정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2관과 5관 및 북도에서 선보인다.

정연심&이완 쿤의 '단층선: 충돌하는 경계들'에 참여하는 사이먼 령의 'Rehearsal for 9 Collective Movements'는 9월 7일과 8일 이틀 간 오후 6-7시 사이 약 20분간 진행된다.

/이연수 기자



우롱솔로의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일 영상 촬영 장면.



김성후 교수의 자동차로 유럽여행
〈22〉프랑스 지중해 연안 휴양도시 칸

전 세계 여행객들의 화려한 휴양지

샤갈과 마티스가 반해 여생 보낸 곳

프랑스의 조그맣지만 유명한 도시 칸은 휴양지 니스와 붙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탈리아의 서부도시 토리노(토리) 쪽에서 지중해를 따라 남하하다 보면 해안을 따라 모나코 왕국이 있고 니스가 있으며 이어 칸이 있다.

그렇다면 칸, 또는 일명 칸느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왜 사람들은 칸의 매력에 푹 빠지는가? 칸 국제영화제가 있어서인가? 베를린, 베네치아와 더불어 세계3대 국제영화제인 칸영화제가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현대와 같은 종합예술시대에 젊은이들 모두가 은막의 스타를 꿈꾸고 있어서일까? 의문은 꼬리를 잇는다. 직전 여행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수도 파리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 외딴 지역인데도 왜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칸으로 몰려들고 있을까?

영화를 좋아하던 청소년시절부터 자연스레 관심을 가져온 탓에 짙은 호기심을 갖고 칸의 동쪽 외곽으로부터 자동차로 도시에 입성했다. 도시의 거리거리마다 그 풍경과 그 곳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눈여겨보며 도시의 정경을 감상했고 그 속살을 뚫어지게 관찰했다. 그 이유는 그 곳이 왜 그렇게 세계인의 로망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지 스스로 캐묻고 답해야 했기 때문

이었다. 유럽의 대표적인 남부 휴양지로 유명한 칸은 겨울철에도 온화한 바다 덕에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뜨거운 계절에도 따가운 태양을 즐기려는 여행객들의 발길은 그치지 않는다. 이 곳의 비치는 니스의 거친 자갈투성이 비치와 달리 고운 모래로 잘 정비되어 사시사철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그런데 장미꽃이 피기 시작하는 화려한 5월에는 12일간 전세계의 영화인들이 칸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이 곳으로 모여드니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들로 인해 관광객까지 이 도시에 넘쳐나게 된다.

필자가 도착한 7월에는 70회 영화제가 끝난 계절이었지만 영화제가 열리는 메인홀 주변은 아직도 영화제의 잔영이 물씬 묻어나고 있었다. 프랑스 여행 하면 아마 모두가 남반과 예술의 도시인 화려한 파리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칸이 아닐까 싶다. 전세계 모든 어린이들은 어릴 적부터 여우의 화려한 드레스와 젠틀한 남우의 턱시도가 뿜어내는 우아함과 화려함에 스스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누구나 무지개빛 꿈을 꾸며 자라나는데 휘황찬란한 조명을 받는 스카가 되는 꿈은 현대의 어

린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지... 현대판 영웅이 바로 연예계의 아이돌이 아닌가.

세계적인 미술가인 샤갈과 마티스가 반해 여생을 보냈다는 칸은 남쪽 프랑스를 대표하는 휴양도시 니스와 함께 코트다쥐르 지방에 속해있다. 지난번 글에서 말했듯이 인근 니스에는 샤갈, 마티스 뿐만 아니라 마세나미술관이 있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즉, 전 세계 모든 여행객들에게 화려한 휴양지로 알려진 니스는 당일치기로 칸과 함께 관광할 수 있다. 따라서 파리에서 테레베로 접근하면 오전에는 칸 여행을 마치고 오후에는 니스로 떠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니스에서 아침부터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진입했으므로 서둘러 레드카펫이 펼쳐져 있는 칸영화제 건물을 찾아 가야 했다. 영화제의 열풍이 지나간 7월의 칸은 오후의 일상이 조용하고 나름 한가했다. 도시는 쾌적하고 조경과 건축이 우아하고 매력적이었다.

요즘은 지도 한 장 없이도 카 내비와 휴대전화 내비에 의존하여 도심으로 길을 잃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 칸영화제의 현장은 어떻게 도시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을까 자못 궁금한 가운데 근처에 이르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전세계 모든



해변에서 일광욕하는 관광객들.

사람들이 화려한 스타들의 쇼를 구경하기 위해 가보고자 하는 칸은 어떤 경관을 가지고 있을까? 영화제의 현장에 가까이 갈수록 영화제의 흔적이 드러나면서 흥분되기 시작했다.

레드카펫이 건물 입구 계단에 항상 깔려있는 영화제 건물은 바로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카펫 계단에서 각국에서 몰려든 젊은 여성들이 온갖 포즈로 기념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화려한 의상으로 레드카펫에 오른 탐방객들도 자주 눈에 띄었다. 젊은 여성들이 왜 그리 인종상에 열성인지, 그곳에 선 그녀들이 왜 그리 행복해 보이는지 영화에 그 답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만약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면 인간의 환희와 열락은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간접적인 대리만족이라도 괜찮다. 모두가 다 무대에 오를 수는 없잖을까. 필자도 물론 인증샷을 찍었지만 계단에 오르는 것은 않았다. 그 앞에서 서서 겸허

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내가 그 현장에 와본 것으로도 좋았다. 필자에게는 영화제의 분산 앞에 서본 것만으로도 대단한 만족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주변의 경관도 모두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 건물 바로 옆의 고운 모래의 해변에서는 그저 행복해 보이는 휴양객들의 적나라한 모습도 엿볼 수 있어 좋았다. 인근의 관광안내소 주변에는 LA 할리우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칸을 찾았던 유명스타들의 수많은 핸드프린팅이 있다. 원래는 영화제 기간동안 레드카펫을 깔았지만 이제는 관광객들을 위해 항상 깔아 놓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모두 칸의 매력에 빠져서 계단에 스타인양 오르면서 즐거운 체험으로 기뻐하지 않는가. 돈많은 관광객들을 노린 카지노도 칸의 매력이지만 훌륭한 관광정책이 아닐 수 없다.

/동신대 교수(호텔관광학과)

상가원룸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1층 ★ 상가2칸★

2층 ~ 3층 (원룸 9개) (투룸 2개)

4층 (최고급 주택) (룸3개)

★ 공원앞 전망 최고 ★

보 9천 . 월 600만(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20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용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3억5천만가능)

010-7384-7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6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상가빌딩 (추천)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물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토지 기타 추천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 / 빌라 / 숙박시설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 103평 건 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 136평 건 427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7억1천9백

③ 서구 치평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④ 북구 용봉동 (12층중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⑤ 북구 양산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7백 → 최저가 4억4천

A.P.T. 주택

① 서구 병촌동 현대아파트 (40평)
▶ 감평가 2억8천 → 최저가 2억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제 (32평)
▶ 시세 6억 → 최저가 4억2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아파트 (25평)
▶ 감평가 1억8천 → 최저가 1억2천

④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25평)
▶ 감평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양아파트(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공장/기타

①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 1,999평 건 2,490평
▶ 감평가 68억 → 최저가 47억

②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 506평 건 526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9억8천

③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 510평 건 237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④ 전남 장성 북 (공장) 토 510평 건 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남구 백운동 (빌라) 토 65평 건 145평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함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